

정기간행물 출판기사 색인

- 날개돋친 「정지용시집·전집」-각종 서점의 베스트셀러로 20일 만에 5천부 소화(중앙일보 2월29일)
- 신인작가들 '현실'고발 활발-정화진, 이택주, 석정남씨 등은 노사분규를 소재로...기성모방 아닌 사회이슈 형상화에 관심(동아일보 3월1일 高美錫기자)
- 한국출판계의 현주소-복제업계 진로...신학기 앞두고 최대위기...수입업권 확보, 연계방안 모색할 때(한국경제신문 3월2일 李成九기자)
- 계간 「문학과 사회」 창간호 나와-80년 폐간된 「문학과 지성」 뒤이어 / 정과리의 「민중문학론」 등 관심모아(한국일보 3월2일 金薰기자)
- 지역문화 "민족문화로 승화시킨다"-부산·광주 등 6개지역 문인 60명 '環村문학'운동 / 문학무크지 「민족과 지역」도 창간...공동체 추구, 향토성·현장성에 바탕... '서울중심'극복 다짐(중앙일보 3월2일 奇亨度기자)
- 철학, 쉽게 풀어 널리 알린다-철학문화연구소, 무크지 「철학과 현실」 발간 등 활발 / 현실의 본질 파악, 문제점·해결책 제시(중앙일보 3월3일 康英鎭기자)
- 조형예술 전문월간지 늘어-출판자화와 여파...순수미술, 디자인, 인테리어 등 다양(동아일보 3월3일)
- 한국소설가 '죽음'에 친화적 태도-목포대 俞金浩교수, 박사학위논문서 분석 / 자살 37%...무속적 생사관 드러내 / 자연으로의 당연한 복귀로 파악(서울신문 3월3일 任英淑기자)
- 중편소설 기획출간 잇달아-신작 선집, 문고본, 작품집 등 다양...중견·신예 망라 출판사서 문제작 발굴 / '본격 장편시대의 징검다리' 기대(조선일보 3월3일 曹良旭기자)
- 국내 첫 방송언어 종합연구서-KBS 한국어연구회 발간 「방송언어연구논총」 / 86 아시안게임 중

- 계 등 실증 분석...발음, 표현, 어휘 선택 잘못 등 지적(조선일보 3월4일 曹良旭기자)
- 월북작가 해방전작품 해금 추진-출판협회, 3·4월 중 문공부에 건의키로 / 사상적 경향없는 전작품 대상...관계분야 학자들에 선별 의뢰 / 문학사의 올바른 복원위해 불가피(서울신문 3월4일 朴康文기자)
- 청소년잡지 갈수록 저질화-규제완화 악용, 흥미위주로 편집 / 연예인기사·자극적 광고 90% 나(경향신문 3월4일 鄭基修기자)
- 박·석사학위 연구논문 주제, 월북작가·프로문학론 늘어-87년학년도 전기 박·석사학위논문 조사결과(경향신문 3월4일 安健熾기자)
- 노벨상 받은 佛 대하소설 「티보家の 사람들」 국내 첫 완역 출간-최초의 사회참여 소설로 평가(서울신문 3월4일)
- 문화 새풍속도(13) 출판사 문화창출 주역으로 발돋움-詩劇공연서 박물관 설립까지 / '문화상품' 제조·판매등 '단순업자'시대 마감(경향신문 3월5일 安健熾기자)
- 고르바초프저서 무단출판 파문-美하퍼社 한국에 항의 공문... 「번역서 저작권보호」 첫 요청 / UCC 가입후 발생...법적 조치 귀주 주목(한국일보 3월5일 金龍善기자)
- 단절됐던 현대문학흐름 다시 이어져-정지용·김기림 작품 해금과 문화계 영향 / 두 시인 모두 이념과 거리, 언어의 세공 통해 거래 정서 읊어 / 국민의식 성숙...해금 충격 없어 / 다른 재북문인도 단계별 허용을(한국일보 3월5일 金薰기자)
- 80년대 소설문학 주제별 집대성-신예평론가 5인이 5권의 전집으로(경향신문 3월7일 孫東佑기자)
- 33년간 한국문학 선도-현대문학 400호...55년 창간이후 휴간 한번 없이 발간 / 잡지사상 최장수...문단의 산 증인...시·소설·평론 등 문인 445명 배출(중앙일보 3월7일 奇亨度기자)
- 민속다문 책 많이 나왔다-세시 풍속, 무속, 신화, 민요 등 분야 다양화(동아일보 3월7일 宋煥彥기자)
- 출판계 「三清교육대」 조명작업 활발-진상폭로수기 이어 소설·시집 출간도 계획(동아일보 3월7일)
- 한국의 자연유산 체계있게 정리

- 2년 준비작업 「한국의 자연」 시리즈 출간...동굴·새·산 등 학자 해설, 사진작가 도판수록 / 자연도감, 과학교육 기초자료 활용도 높아(매일경제신문 3월7일 文逸기자)
- 활발해진 근대문학연구-정지용·김기림문학 해금 이후 / 남·월북작가 20~30년대 리얼리즘 분석...만주 해매던 시대 流民詩선집도 퍼내(동아일보 3월8일 高美錫기자)
- 80년대문학 '사회변화에 탄력적 대응'-「문예중앙」 창간 10주년 맞아 심포지엄 / 장르해체 가속, 민중문학등 부상...「10년간의 흐름」 수용...민중문화 역량 확충시켜야(중앙일보 3월9일 奇亨度기자)
- 한국출판계의 현주소(2) 유통 현대화의 길-구조분석 선행...대형, 전문화돼야(한국경제신문 3월9일 李成九기자)
- 시집시리즈 출판열기 뜨겁다-독자와 거리 좁혀 80년대를 '시의 시대'로 꽃피게...「시집내선 돈뭉치」는 옛말...스테디셀러 수두룩(스포츠서울 3월9일 윤홍식기자)
- 고리키 자전적 소설 두 곳서 번역출간-하층민의 삶 통해 19세기 러시아 묘사(스포츠서울 3월9일)
- 계간문학지 중심, 민족문학 토의 활발-주도세력 어느 계층인가 논쟁...문학적 실천문제 등 규명 시도(스포츠서울 3월10일 윤홍식기자)
- 베스트셀러 시집 「감상적 유희성 못벗어」-시인·평론가 5명 「시문학」서 비판 / 삶의 근본과제 접근노력 미흡...출판사의 사업성, 매체의 과대보도 문제(경향신문 3월11일 孫東佑기자)
- 북한연구서 일반출판사서 나온다-「두개의 한국, 하나의 미래?」「행정론」등 4권 선보여 / 민간차원 금기영역 벗어난 큰 변화...일반 독자 겨냥, 수익성기대 단계로(서울신문 3월11일 朴康文기자)
- 소설로 쓴 그리스신화-李潤基씨 3부작 「뫼토스」 탈고...원고지 4천6백장, 2년집필 / 무당이 話者...한국적 이미지 삽입(조선일보 3월11일 曹良旭기자)
- 저자작 발굴로 새 출판문화를-UCC 가입 6개월 맞아 / 저작권 위반 여전...「베껴먹기」탈피해야(조선일보 3월11일)
- 저작권 해설서 출간분-저작권 시대 돕는다 / 이해쉽게 사례별 문답풀이 곁들여...올해안에 전문가

- 상담창구도 설치(스포츠서울 3월11일 윤홍식기자)
- 국립중앙도서관 '도서번호부여권' 출판자유 침해할 우려-출협, 시행령案 삭제 또는 수정 요구(서울신문 3월12일)
- 대우학술총서 100권 돌파-대부분 기초분야 연구서 / 엄정심사 거쳐 출간...「권위」 정평 / 출판상도 여러번 받아...기념리셉션 개최(조선일보 3월12일 金泰翼기자)
- 「도서판금손해」...국가상대 첫 損害賠-「김형욱 최후...」 등 해금 서적 2종 / 정당한 이유없이 묵어 2억 손실...「당국의 출판정책 시험대」 큰 관심(한국일보 3월12일 金龍善기자)
- 도서관법 시행령안 출판자유 침해소지-출협, 문제점 시정 건의 / 국제표준도서번호 법제화 등은 불합리(중앙일보 3월12일)
- 영한사전, 30억시장 판매경쟁 불꽃-국내 10개社 새 판형 중사전 개발...시력보호위해 활자 크게 키워...4x6판으로 혁신 / 시사·금성·민중·동아 4파전 예상(경향신문 3월14일 安健熾기자)
- 대우학술총서 1백권 돌파-자연과학 53권·인문사회과학 29권 등 / 비인기 기초학문 지원...각종 상 수상(중앙일보 3월14일)
- 「사상계」 복간 경합-폐간 18년만에 같은 제호로 등록신청 / 서로 연고권 주장...팽팽한 대립 / 문공부, 「현재로는 「필증」 곤란」...통합만이 최선(중앙일보 3월14일 奇亨度기자)
- 시인 鄭棟柱·金正煥·장정일, 소설가 겸업 선언-「시로 채워지지 않는 얘기 소설화」...농민운동사, 학생운동 체험 등 표출(조선일보 3월15일 曹良旭기자)
- 기초학문 균형발전 큰 기여-「대우학술총서」 발행 100권 돌파 / 과학상 대상·출판문화상 저작상 등 다수 받아...「한국어의 계통」 등은 외국어로 번역 출간도(한국경제신문 3월15일)
- 「반쪽근대문학사」 재정립 본격화-남·월북작가작품 해금따라 움직임 활발 / 공식서명조차 못하던 단계 넘어...개별작가론까지 영역 점차 확대...「한국근대리얼리즘 작가연구」등 속속 출간(한국경제신문 3월15일 朴聖姬기자)
- 대우학술총서 1백권째 출간-83년 첫선, 기초학연구 큰도움...「방언학」「商周史」등 역작 많아(한국

- 일보 3월15일)
- 「현대中文學」연구 침체되고 「기지개」-85년 「현대중문학研」 출범 계기 / 대학강좌·무크지 발간 등 잇달아... 49년 공산화 이전 순수문학 대상 / 중공사회과학원서 한국 논문 첫 소개도(한국일보 3월15일 李基稔기자)
- 잡지홍수시대 재래-올들어 5백여건 신규등록 4·5월 출간 집중 / 출판 활성화 열기로 작년의 5배...복간도 활발(매일경제신문 3월15일 文逸기자)
- 한국출판계의 현주소(3) 임금 실태-저임으로 이직을 높으면...전문인 양성못해...발행인의 전근대적 사고방식도 고쳐져야(한국경제신문 3월16일 李成九기자)
- 사회, 정치적 사건 소설화 빨라졌다-6월항쟁·대통령선거소재 소설 잇달아 발표 / 「급변시대」의 신속한 분석, 조명으로 눈길(중앙일보 3월16일 奇亨度기자)
- 유명 어린이 잡지만화 無益 판정-서울Y 어머니모니터 조사 / 물질만능·허황으로 가득...사고력 발달 해쳐(매일경제신문 3월17일 金慶子기자)
- 시인 金洙暎·朴木月 재평가 작업-타계 20·10주년 맞아 갖가지 기념행사 / 한국詩史에 뚜렷한 발자취 남겨...시선집 발간, 추모 강연회 등 준비(서울신문 3월17일 任英淑기자)
- 「한길역사강좌」 100회-근·현대사 근간, 민중운동 등 13주제 다뤄(한국경제신문 3월17일)
- 「역사의 대중화」 기틀 다져-「場外 토론」 100회 맞은 「한길역사강좌」 / 3년동안 다각 조명... 수강생만도 8백여명(경향신문 3월 17일)
- 표류하는 「精文研」 문교부서 제도 수정-자율발전계획委 모임 무산 5차례...새 위원회구성 5월까지 매듭 / 보직 둘러싼 감투싸움·파벌적 분위기부터 一新을...2천년대 국가진흥 청사진 수립해야(경향신문 3월 17일 朴正鎭기자)
- 「그림시집」 시대 활짝-「어렵고 무거운 시에서 해방」 / 젊은작가들 중심, 새 가능성 모색...명화 만화 곁들여 쉽고 재미있게(스포츠서울 3월 18일 윤홍식기자)
- 시집 출간형태 다양해진다-그림, 만화, 낭송시집 등 잇단 등장 / 판형 변화...장르결합으로 신선미(조선일보 3월 18일 曹良旭기자)